

제주도, 서광로 간선급행버스(BRT) 구간 개통 전·후 분석

버스 평균속도 시속 10.8km → 15.5km

대중교통 이용자 월평균 4만2000명대로 약 5% 증가
일반 차 운행 10% '뚝'... 인근 목적 '풍선효과' 뚜렷

제주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버스 평균 속도가 향상되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서광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줄면서 인근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이 느끼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시간대 차량당 제어지체(교차로 평균 대기 시간)를 측정해 결과, 개선 전 평균 66.99초에서 58.99초로 8초 감소했다.

이러한 교통개선 효과에 해당 구간의 통행 차량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서광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전년 5만9092대 대비 5만2833대로 10% 이상 줄어 들었다.

반면 인근 도로인 연삼로 구간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6만9461대에서 7만6111대로 2.4%, 연북로는 6만9822대에서 6만7171대로 1.1% 증가했다. 줄어든 나머지 차량들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전농로나 한천로 등 또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서광로 구간 버스 이동 속도·차량 통행량·대중교통 이용자·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서광로 BRT 구간에 대한 버스 평균속도를 분석한 결과 개통전보다 44%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리일보DB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6)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인구감소·주차난' 고질적 지역 현안



김황국



김영심



이창민

국민의힘 김황국 4선 도전
민주당 김영심 전 의원 재도전
신인 이창민 예비후보 등록

제주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속하는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는 제주 공항에 인접해 있어 공항 소음피해와 함께 한천의 범람 피해 해소, 원도심의 공동된 문제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심각한 주차난 등이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김황국(58) 의원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출마하며 4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말보다 실천으로 지역 주민들께 보답해 왔고, 이번에도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사업들을 개발해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공항 소음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주거 및 문화시설 개선 ▷주차 관련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9대 제주도의회의원을 지낸 김영심(52) 전 의원이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31년간(주)호텔신라에서 근무한 이창민(58)씨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응답은 사람들이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에 입도하는 제주의 관문임에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며 "한천 범람 피해 해소,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의 활성화, 인구 고령화 및 청년 유출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응답에 새로운 바람이 돼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도보도, 정리-헤드라인제주 홍창빈기자>

제주 행사장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효과'

2년간 48t 감축... 도, 올해 3억 투입해 지속키로

제주지역 행사·축제 현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2년간 약 48t의 폐기물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36개 행사에 다회용기 182만개를 지원해 폐기물 약 26t을 줄였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65개 행사에 다회용기 142만개를 보급해 폐기물 22t을 감축했다.

도는 2년간 일회용품 폐기물 약 48t을 줄이는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제주도 분청 1억3000만원, 제주시·서귀포시 각각 1억원 등 총 3억3000만원이다.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됐다. 행사 주최 측이 다회용기 사용 비용의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분실률이 30% 이상인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사당 지원 상한액은 2000만원이며, 민간 행사는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민주당 도당 광역의원 후보자 1차 공모

제주시 20곳·서귀포시 2곳... 오는 13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1차 공모지역은 제주시 22개 선거구 중 조천읍과 함림읍을 제외한 20개 선거구와 서귀포시 10개 선거구 중 대륜동과 대정읍 등 2개 선거구이다. 나머지 지역 공모는 추후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 공직선거법과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자이다.

1차 공모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다. 해당 지역에 출마하고 싶은 권리당원은 온라인(https://jeju2026.minjoowin.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홈페이지(https://goodjeju.org/index.php)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4-724-64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민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문성유 전 기재부실장 제주지사 단독 신청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문성유 전 실장

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후보자 면접은 11일 치러진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문성유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에너지지킴이' 참여자 모집 공고

그랜드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동서인테리어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동서가구